



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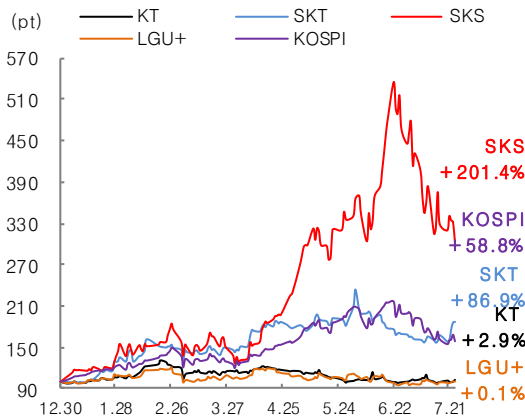
1. 주가 현황

기업	25/12/30	07/16	07/24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89,700	100,000	▲46,500	▲86.9%	▲10,300	▲11.5%	3,320	3.3	
SK스퀘어 (402340)	368,000	1,212,000	1,109,000	▲741,000	▲201.4%	▼103,000	▼8.5%			
KT (030200)	52,600	52,400	54,100	▲1,500	▲2.9%	▲1,700	▲3.2%	2,500	4.6	
LGU+ (032640)	14,720	14,620	14,740	▲20	▲0.1%	▲120	▲0.8%	700	4.7	
KOSPI	4,214.2	6,820.6	6,690.6	▲2,476.5	▲58.8%	▼130.0	▼1.9%			

- 주가 코멘트: AIDC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통신 주간 +6.9%, KOSPI -1.9%. YTD 통신 +32.7%, 지수 +58.8%
- 6/22 지수가 9.115pt의 고점 형성 후 -27% 하락한 동안, 통신은 오히려 +4.5% 상승. 동기간, SKT +6.2%, KT +3.45, LGU+ +1.8%
- 2Q 합산 OP 1.4조원(-14% yoy)의 양호한 실적 전망에 더해 지수 급등락에 따른 방어 역할까지 부각되면서 지수대비 아웃퍼폼
- 이번 주에는 SKT가 상승 주도. SpaceX IPO 이후 주가 하락이 Anthropic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면서 SKT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가, Anthropic이 10월 상장을 목표로 투자자 미팅에 나섰고, 2Q 흑자 전환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Anthropic에 대한 기대감이 SKT 주가에 반영
- AIDC를 전담할 SK 하이퍼의 출범은 주가에 중립 영향. 빠른 실행력은 긍정적이나, BM에 대한 불확실성은 풀어야 할 숙제
- 투자 시점별 매력도: 7~8월 2Q 호실적과 자사주 규모 공개 관련한 LGU+, 10월 Anthropic 상장 모멘텀 관련 SKT, 중장기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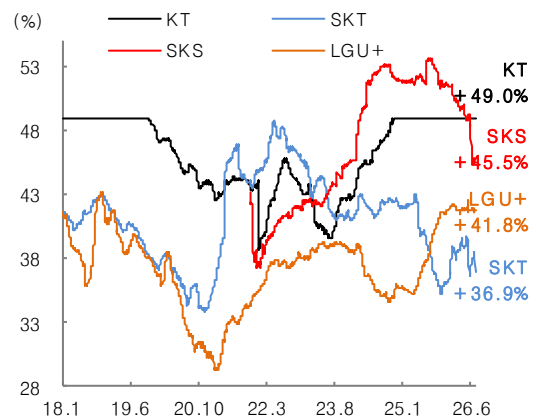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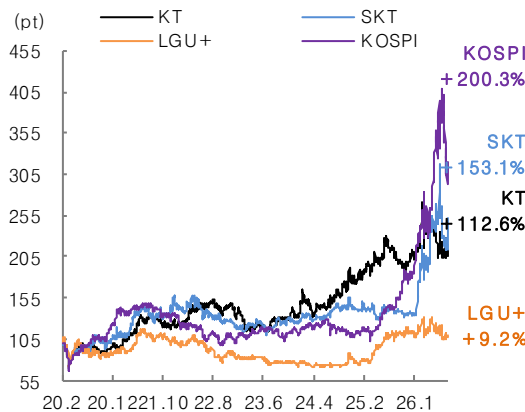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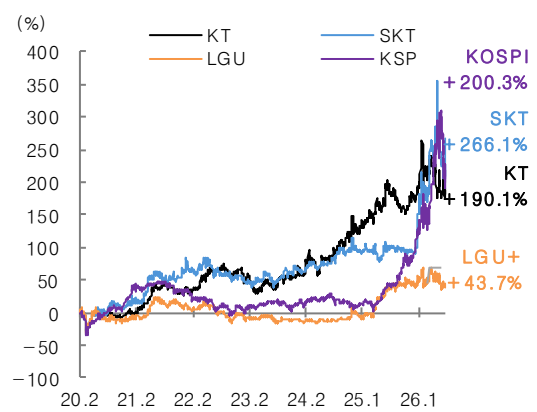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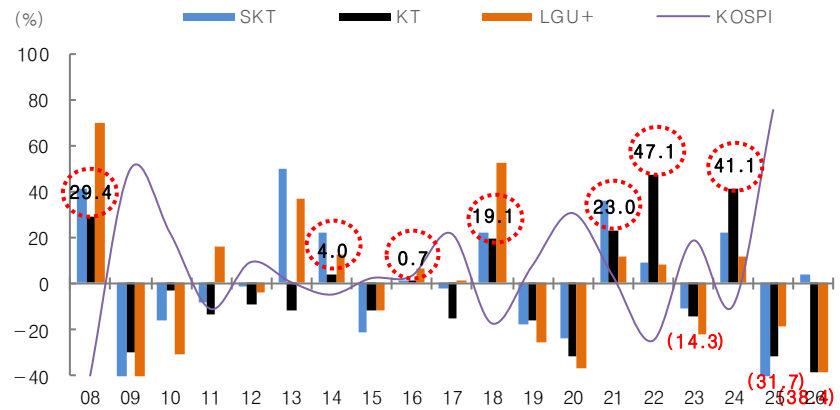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86.9%(+17.7%), KT +2.9%(-35.2%), LGU+ +0.1%(-36.9%)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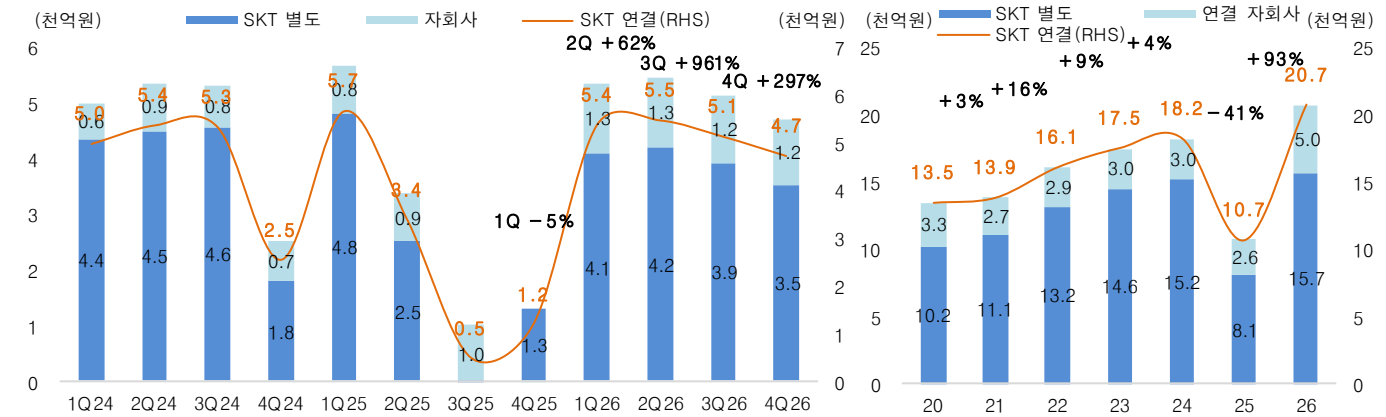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86.9	2.9	0.1	58.8	17.7	(35.2)	(36.9)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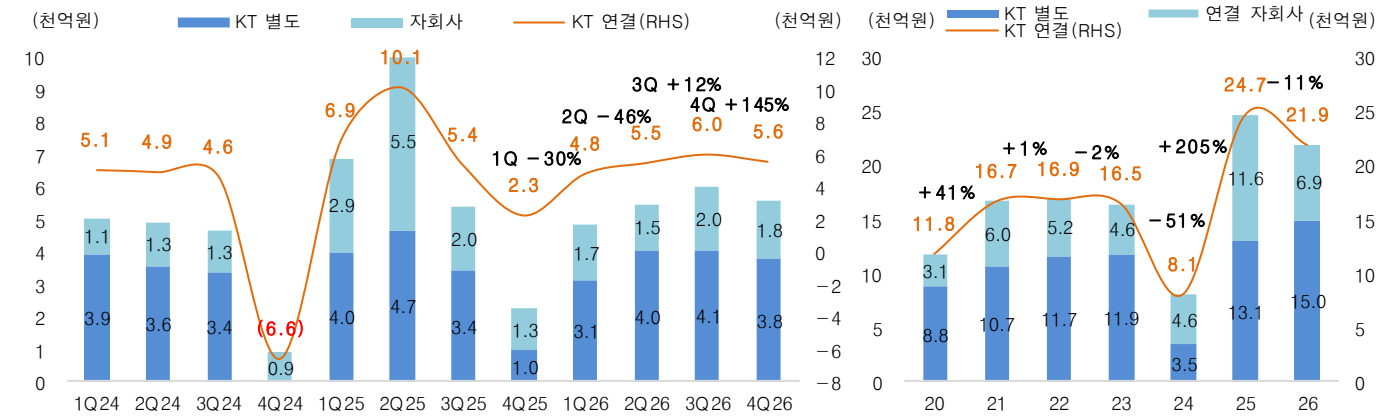
3. 2Q26 Preview

SKT OP 2Q26 5.5천억원(+62% yoy), 26E 2.1조원(+93%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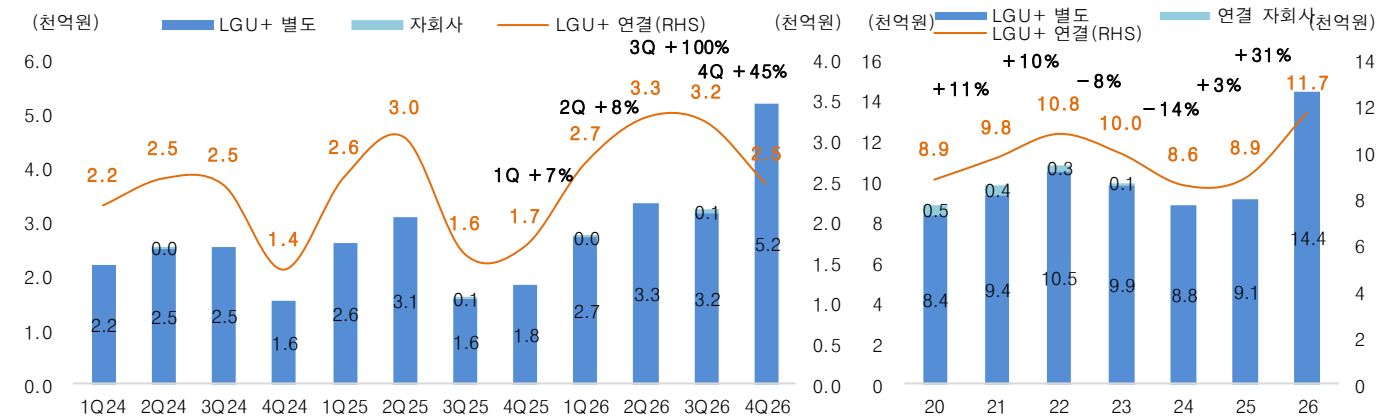
자료: LGU+,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T OP 2Q26 5.5천억원(-46% yoy), 26E 2.2조원(-11%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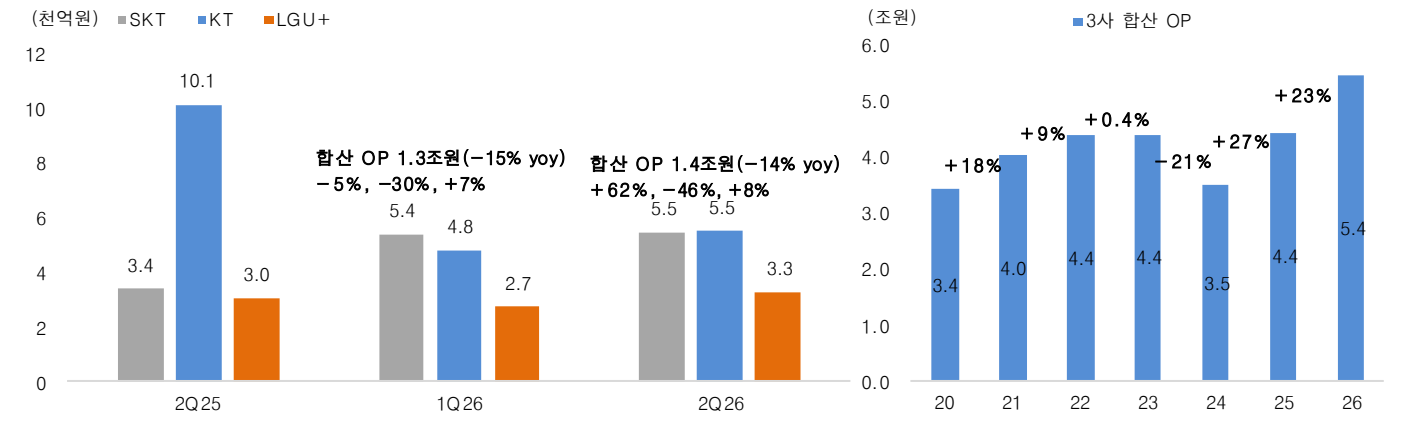
자료: S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GU+ OP 2Q26 3.3천억원(+8% yoy), 26E 1.2조원(+31%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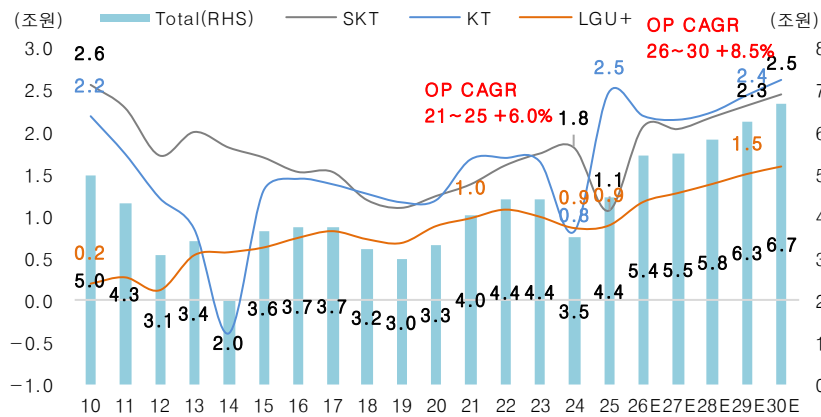
자료: 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사 합산 OP 1Q26 1.3조원(-15% yoy), 26E 5.3조원(+19%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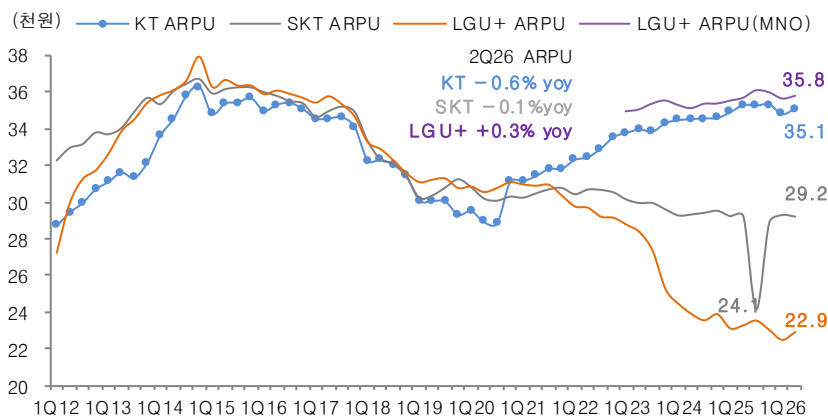
자료: 각 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사 합산 OP 26E 5.4조원, 30E 6.7조원. 연평균 8.5% 증가 전망



자료: 각 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Q26 무선 ARPU. SKT -0.1% yoy, KT -0.6% yoy, LGU+ +0.3% yoy 전망



자료: 각 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주간 코멘트

KT AI 구독 요금제, AI클래스 출시 경쟁, KT 자회사 통합, SKT AIDC 자회사, LGU+ IoT 천만 회선

KT

KT AI 구독 요금제

1. KT가 구글의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구글 AI 플러스'를 기본 혜택으로 제공하는 신규 요금제를 8월 출시. 갤럭시 Z폴드8·Z플립8 등 신제품 출시에 맞춰 AI 중심 요금제 경쟁 본격화
2. 신규 요금제는 '조이스 더블 유튜브 프리미엄+구글 AI 플러스'와 '조이스90·110·130 구글 AI 플러스' 등으로 구성. 기존 OTT 중심 혜택에 AI 구독을 추가해 9만~13만원대 요금제 경쟁력 강화
3. 구글 AI 플러스는 제미니AI 3.1 프로, 딥리서치, 노트북LM, 플로우, 나노 바나나 프로 등을 제공하며 400GB 클라우드 포함. 월 2만원 추가 시 상위 상품인 '구글 AI 프로' 이용 가능
4. 조이스 더블 요금제는 기존 디즈니+·폰켓어 할인 대신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구글 AI 플러스를 기본 제공. 조이스 요금제 이용자도 OTT 혜택과 함께 AI 구독을 선택 가능
5. SK텔레콤은 T우주와 고가 요금제에 구글 AI 구독을 도입했고, LG유플러스도 '유독'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구글 AI 결합 상품을 운영. 통신 3사 모두 AI 구독을 핵심 요금제 혜택으로 확대하는 추세
6. KT는 국내 생성형 AI 이용률 증가에 맞춰 AI 구독을 새로운 요금제 경쟁력으로 육성할 계획. 갤럭시 Z 시리즈 신제품 사전예약과 연계해 신규 가입자 확보 및 교체 수요 흡수 추진

경쟁력

- AI 시대에 통신의 역할은, LLM 개발부터 AI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해서 통신의 부가서비스화 하는 것
- AI 산업 태동 초기에는 통신사들도 과거 AI 스피커 운영 경험을 토대로 LLM 개발에 나섰으나, 비용과 데이터의 부족으로 중단
- 소버린 AI 시대를 대비하여 LLM을 구축해 놓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잘 만들어진 솔루션들을 통신사들이 내재화해서 BM화 하는 것이 중요

산업

AI클래스 출시 경쟁

1. 통신 3사가 AI 클래스 레이벤 메타를 동시에 출시하며 웨어러블 시장 경쟁 본격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AI 서비스 플랫폼 확보 위한 통신사 경쟁 확대
2. 레이벤 메타는 메타 AI를 기반으로 음성 질의응답, 사진·영상 촬영, 메시지 응답, 미디어 제어 기능 제공.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와 3K 영상 촬영, 오픈 이어 스피커를 탑재해 AI 기반 일상 활용성 강화
3. 출시 모델은 레이벤 웨이퍼러 2로 기본형 69만원, 팜판렌즈 모델 74만원 책정. 통신 3사는 요금제와 결합한 할부 할인 프로그램을 앞세워 구매 부담 완화 경쟁 전개
4. SKT는 고가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할부 할인과 체형 공간 운영 제공. KT는 멤버십 할인과 디바이스 요금제를 연계해 판매 채널 확대. LGU+는 디바이스 할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일반 요금제는 최대 약 51%, 고가 요금제는 최대 약 80% 할인 제공. 이용자는 조건에 따라 월 3,000~9,000원대 수준으로 AI 클래스 이용 가능
5. 통신사들은 AI 클래스를 자체 AI 서비스와 연계하는 핵심 단말로 육성 추진. 글로벌 AI 클래스 출하량은 올해 1,000만대를 넘고 2030년에는 연평균 47% 성장한 3,500만대 규모로 확대 전망

경쟁력

- AI 클래스 자체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다만, AI 클래스가 확산되고 서비스가 안정화될수록 AI 클래스를 통한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통신사의 수익 파이프라인이 추가 되는 효과 발생 전망

KT

KT 자회사 통합

1. KT가 중복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통합을 추진하며 49개 계열회사 효율화 작업 착수. 박용영 대표가 조직 슬림화와 사업 시너지 강화를 목표로 내부 구조 개편 본격화
2. 박 대표는 전략본부장과 콘텐츠 계열사 대표를 지낸 박현진 커스터머부문장에게 통합 추진 전권 부여. 콘텐츠 사업을 시작으로 중복 조직을 정리하고 자원 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 제시
3. 우선 검토 대상은 지니뮤직과 밀리의서재 등 콘텐츠 구독 계열사. KT스튜디오지니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사 사업 구조를 통합해 사업 운영과 투자 효율 개선 추진
4. 스튜디오지니와 ENA 통합 가능성도 내부에서 거론되며 콘텐츠 기획·제작·방영 기능 일원화 논의 확대. 방송 콘텐츠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해 제작과 유통 시너지 확보 기대
5. 장기적으로는 스카이라이프와 KT HCN 통합 가능성도 검토 대상. 사업 중복 해소와 방송·통신 사업 효율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규제와 노조, 조직 규모 차이가 주요 변수
6. KT클라우드 흡수합병은 AI 전환 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 속도 확대 전망. 핵심 계열사 기능을 본사로 통합해 AX 경쟁력을 높이고 그룹 전반의 조직 효율화를 강화하는 전략 추진

경쟁력

- 조직이 많다고 꼭 비효율적인 것은 아님.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직을 분할 신설하는 모습도 중요
- 다만, 각 조직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시점에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SKT

SKT AIDC 자회사

1. SKT가 AI 데이터센터 사업 전담 자회사 'SK하이퍼'를 설립하고 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본격 착수. 30년까지 7,500억원을 쏟아지며 대규모 AIDC 개발 기반 구축
2. SK하이퍼는 SKT의 100% 자회사로 운영되며 출자 한도 내에서 단계별 투자 진행. AI DC 부지 확보와 변전소 구축, 고객 유치, 사업화 등 개발 전 과정 전담
3. 29년부터 5GW 규모 AIDC를 단계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설정. 이후 시장 수요에 맞춰 35년부터 총 15GW 규모 AIDC 순차적 오픈 추진
4. SKT는 그룹 차원의 AI 인프라 역량 결집을 위해 CEO 직속 AIDC 통합추진단도 신설. 그룹 내 AI와 DC 사업을 통합 관리하며 실행력과 사업 추진 속도 강화
5. 초대 대표에는 정석근 AI CIC장 선임. SK하이퍼와 AIDC 통합추진단장 겸임. 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룹 AIDC 전략과 실행 조직을 연계하는 역할 수행
6. SKT는 정부의 AI 인프라 확대 정책과 연계해 대규모 AIDC 구축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와 국내 AI 생태계 확대를 위한 장기 투자 전략 본격화

중립적

- AIDC 관련 빠른 실행력은 긍정적. 다만, 2~5GW AIDC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7.5천억원이면, AIDC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수익 인식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LGU+

LGU+ IoT 천만 회선

1. LGU+의 IoT 회선이 국내 통신사 최초로 1,000만개를 돌파하며 시장 선두 입지 강화. 회선 중심 사업을 넘어 AI 기반 플랫폼과 데이터 서비스로 사업 영역 확대 추진
2. 6월 말 기준 IoT 회선은 1,100만개에 육박하며 국내 최초 1,000만 회선 달성. 과기정통부 집계 당시에도 LGU+는 989만개로 SKT와 KT를 앞서는 시장 1위 유지
3. 5~6월에만 50만개 이상의 신규 회선을 확보하며 성장세 지속. 한국전력공사 지능형 전력량계 사업을 중심으로 원격관제 분야에서 회선 증가가 가장 큰 비중 차지
4. 수도 원격검침과 시설안전관리, 원격관제 등 공공·산업 분야 수요 확대가 성장 기반 역할 수행. 에너지와 수도, 배관관리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IoT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5. LG유플러스는 수도 원격검침 약 270만 회선을 운영하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대형 사업 수행 경험 축적. 회선과 단말,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AI 기반 관제 플랫폼과 예지보전 서비스 확대 추진
6. 회사는 IoT를 저수익 회선 사업이 아닌 AI·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하는 전략 추진. 공공과 산업 분야의 AI 전환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 효율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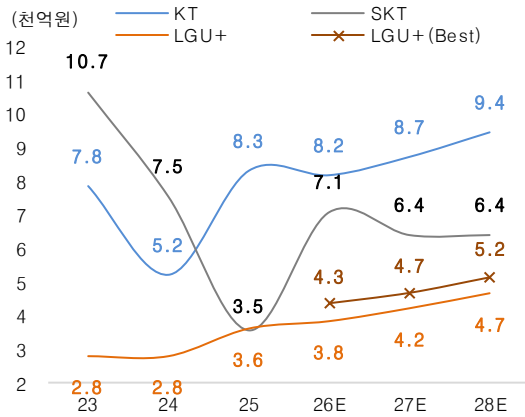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확보하는 방향 강화

긍정적

- 통신사의 기본 BM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용료. AI 클래스가 새로 출시되었고, 생성형 AI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IoT 회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ARPU는 기존 핸드폰 ARPU 대비 낮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면 의미 있는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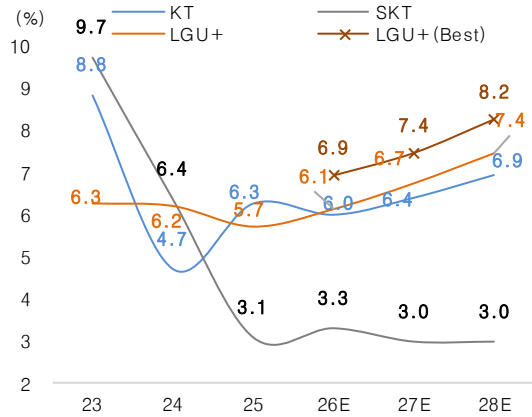
5.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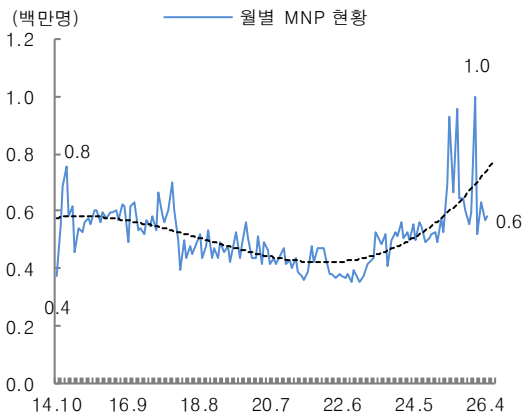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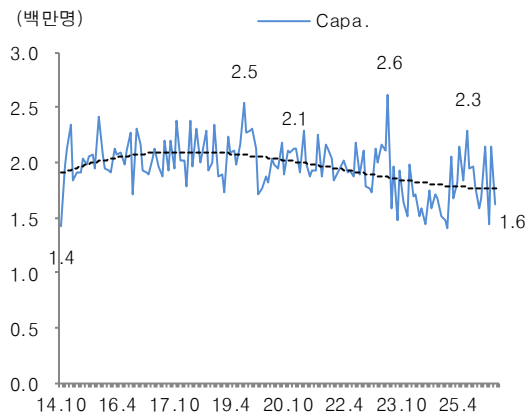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6월) 64만명, +6만명 mom. 25년 월평균 66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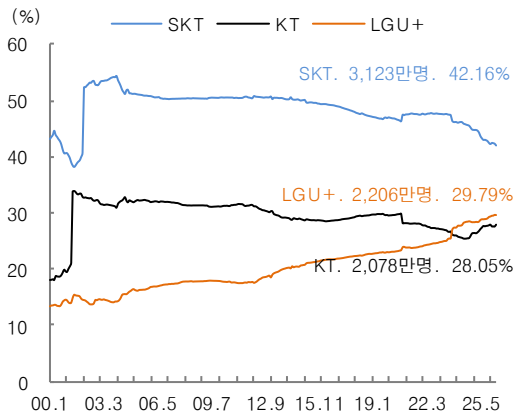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62만명(26.4월). 24~25년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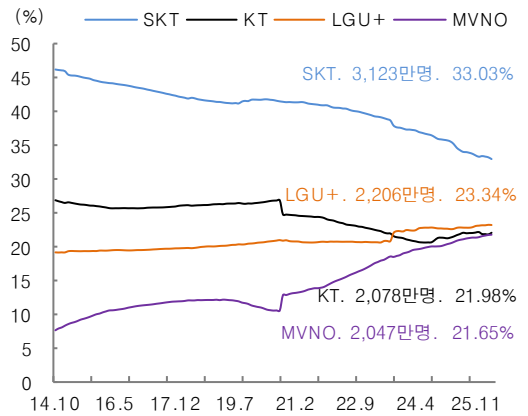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4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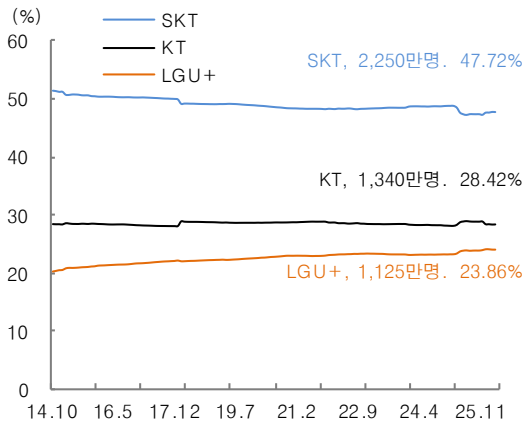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4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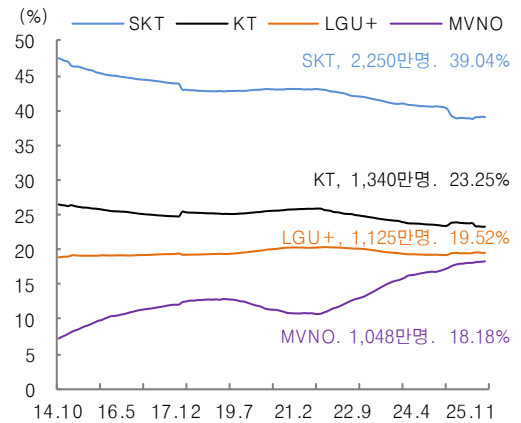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4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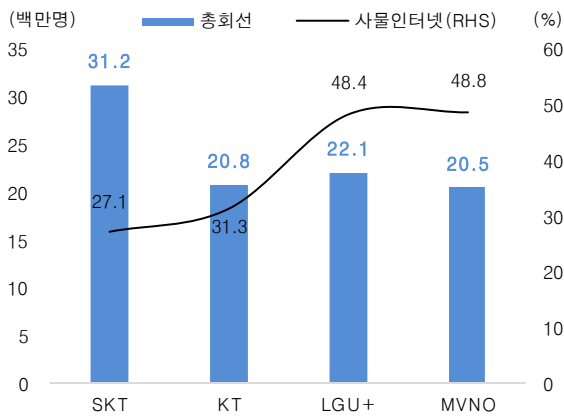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4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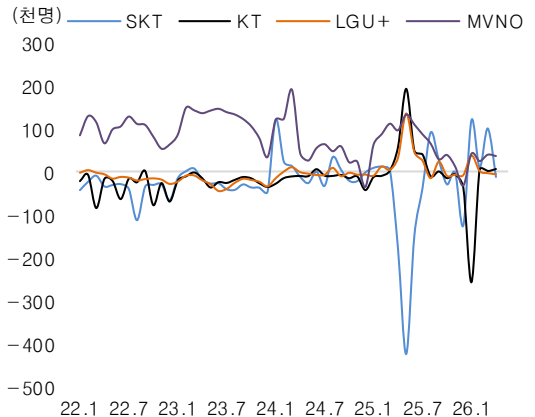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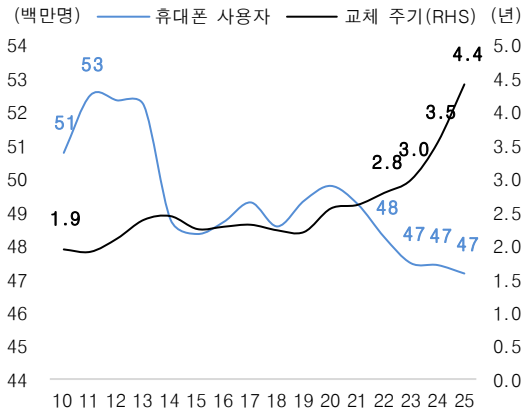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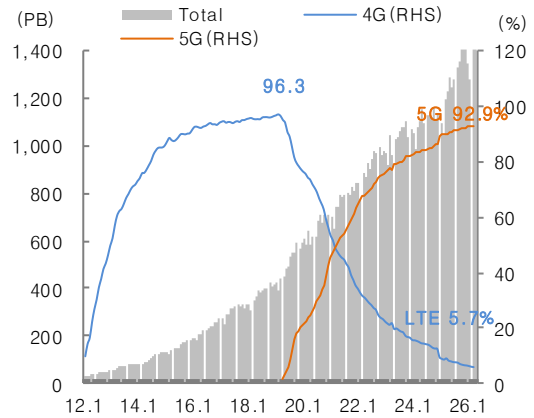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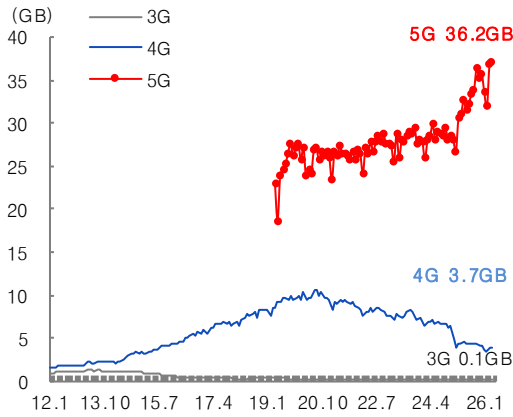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9%(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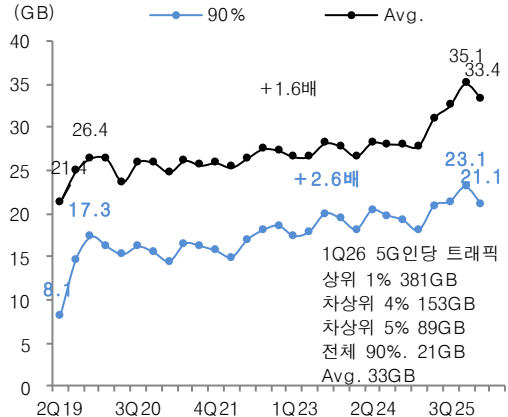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6.2GB(26.4월), +0.2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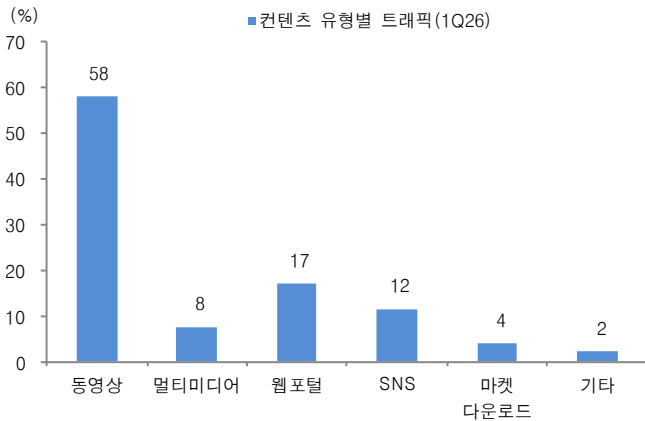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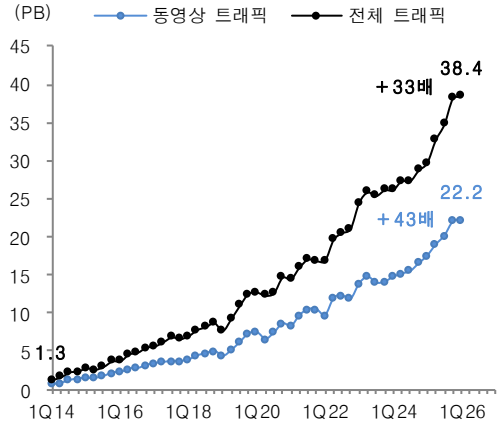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컨텐츠 유형별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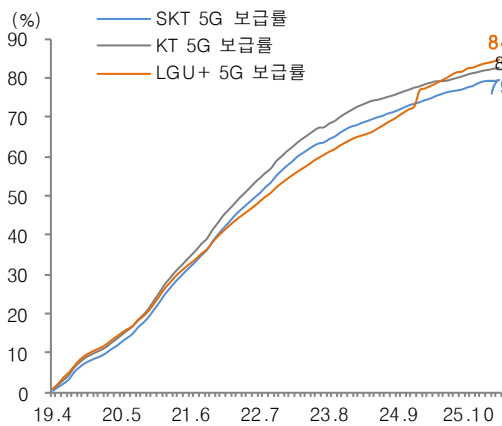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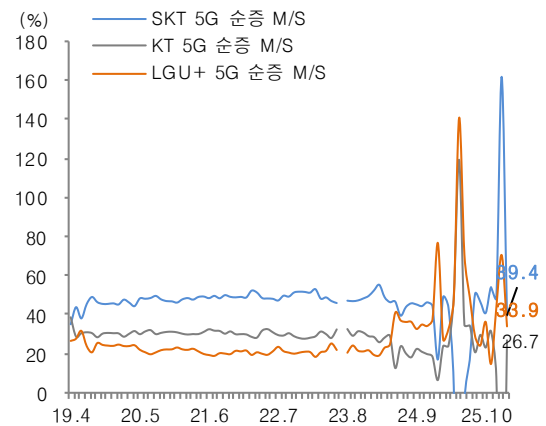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1.6%(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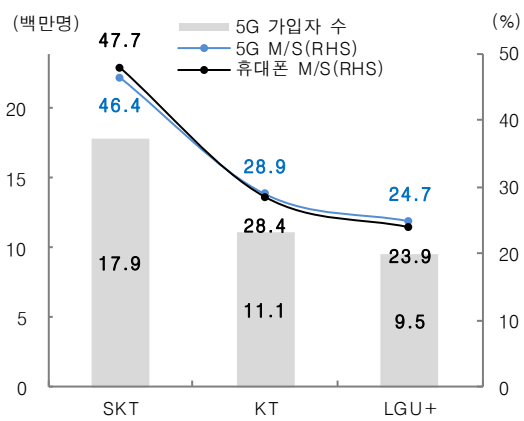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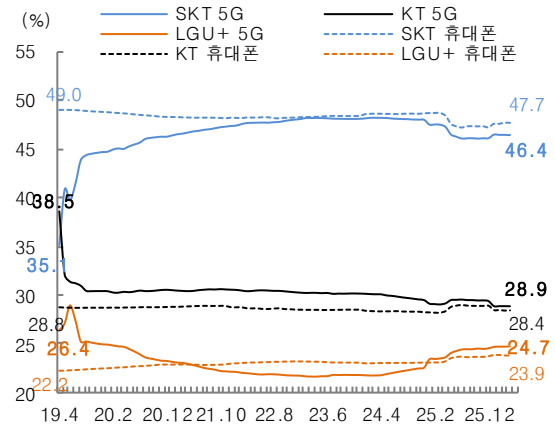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4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4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